'國統' 주인공, 신라 진골 '고승'

최연식 교수, 흥전리사지 출토 비편 명문 분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3일 불교문화재硏 학술대회서
10세에 출가… 수행 · 지계 철저
국왕에 唐서 경전 구할 것 건의
"사지, 강원 유력 선종산문" 추정

강원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비편 명문을 분석한 결과 비편의 주인공이 신라 진골 출신 고승이며, 사지는 강원 유력 선종산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는 2월 23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흥전리사지 조사 성과와 의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흥전리사지 수습 고승비편의 내용과 성격'에서 현재까지 출토된 14편의 비편(홍영호 · 김도현 수습 4편, 강원문화재연구소 4편, 불교문화재연구소 6편)의 명문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석의 주인공은 신라 진골 출신 김 씨로 아버지는 소판(蘇判)의 관등을 가진 상층귀족이다. 하지만 조부의 경우 구체적인 관직이나 관등이 기록되지 않고, 아버지 역시 관등만 있어 중앙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10세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출가를 했으며, 출가 이후 열심히 수행해 몇 가지 상서(祥瑞)를 드러내기도 했고, 구족계를 받은 후에는 계를 잘 지켜 많은 존경을 받아 국통(國統)의 직책까지 맡은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 행적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왕에게 당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올 것을 건의한 부분이다. 당시 당나라에서 대장경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신라 때 대장경을 수용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643년(선덕여왕 12)에 경전 4백여 함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유일하다. 이후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827년(흥덕왕 2)과 851년(문성왕 13)에 약간의 경전을 들여온 것이 확인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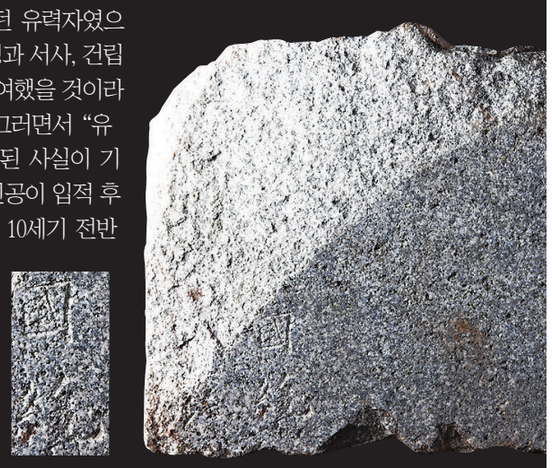
최 교수는 "비석의 주인공이 직접 당나라서 경전을 가져왔다면 가져온 경전의 처리 등이 비문에 언급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은 없다"면서 "국왕에 건의했다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볼 때 비석의 주인공은 어떤 일을 계기로 당나라서 대장경을 구해오도록 국왕에게 건의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는 비석 주인공이 입적한 함통년간보다 이른 850년대가 될 것"이라며 "851년 사신 원흥이 불경을 가지고 귀국한 기록이 있다. 비석 주인공의 건의에 의해 당나라서 불경을 가져왔거나 원흥이 불경을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대장경을 구할 것을 왕에게 건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석 건립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유력자였으며, 비석 본문 및 임기작성과 서사, 건립에는 사지의 승려들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최 교수는 추정했다. 그러면서 "유력자에 의해 비석이 건립된 사실이 기록된 것을 볼 때 비석 주인공이 입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10세기 전반에 비석이 조성됐을 것"이라며 "흥전리사지는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전반까지 비석 주인공과 문도들에게 의해 운영되던 신라 말-고려 초기의 강원 유력 선종산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승현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사가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를,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장이 '흥전리사진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홍영호 하슬라문화재연구소장이 '삼척 흥전리사지 삼층석탑의 미술사적 의의'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양정석 수원대 교수, 엄기표 단국대 교수, 심재연 한림대 한림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홍성익 강원대 외래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삼척 흥전리사지에 출토된 비편. '국통'이라는 명문이 확인된다. 14편의 비편을 확인한 결과 비석 주인공은 신라 진골 출신 김 씨로 명망 높은 고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 참가기

"올림픽 선수촌서도 불교문화 전했으면"

김영기 포교사

전세계인들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에서 선수들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불자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20여 포교사들을 중심으로 50명이 넘는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평창올림픽선수촌 물류팀에서 1월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영기 포교사는 "선수들이나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 전통인 불교문화를 더욱 알리고 싶다"며 생생한 올림픽 현장의 참관기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김영기 포교사(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선수촌 물류팀 사무실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평창올림픽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각국 대표들의 장비와 생활용품 등을 나르고 지원하는 물류팀에 있는 김영기 포교사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저희 봉사자들은 총 9명이 현재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는 오전에는 2명이, 오후에는 3명이 돌아가며 당번을 맡아 근무합니다.

선수촌에는 각국 협회 임원을 비롯해 지도자들이 먼저 입촌하고 선수들이 나중에 입촌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많은 국제 경험으로 인해 영어회화 등이 가능해 저희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이슈가 됐지만, 봉사자들인 저희들에게도 북한 선수들의 입촌은 관심거리였습니다. 2월 8일 양양공항을 통해 북한 선수단이 입촌했습니다. 당시 경비가 매우 삼엄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비록 북한선수들을 안내하지는 못했지만, 북한 선수단의 입촌 후 5일째 되는 날인 2월 13일 IOC물류 사무실에서 북한대표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입촌 당시의 긴장감이나 평소에 느꼈던 생각과 달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수촌에 있으며 아쉬운 점은 선수촌 내에 종교시설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동계 종목은 기독교 국가에서 참여를 많이 하는데 많은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종교시설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기독교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불교 법당 또한 있다면 선수단과 외국 관광객들이 불교문화를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수촌의 식당 또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사찰음식을 필두로 한 한국의 채식 메뉴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는 육식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식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사찰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오랫동안 전승되고 있습니다. 선수촌에서도 이런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 입촌에 긴장 · 감동
종교문화 소개의 장 부족 아쉬움
청소년 불자들 힘 절실히 느껴져

올림픽을 보시는 많은 불자분들이 이번 올림픽에 자메이카,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인해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불교국가들에서도 올림픽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포교사로서 불교계 행사에 봉사를 하지만 국가적인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나서보니 청년불자들의 힘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젊은 청년들입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불교 또한 이러한 청년불자들이 많아진다면 점차 발전하지 않을까요?

사회 현안 불교적 모색 'BTN 붓다회포럼' 발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사회 현안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붓다회 포럼'을 발족했다.

BTN은 2월 21일 AW컨벤션센터에서 'BTN신년하례법회 및 붓다회포럼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구본일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개국 23주년을 맞은 BTN이 부처님의 법으로 사회공익을 실천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에 맞는 공익사업과 진정한 방송포교의 길을 위해 붓다회포럼을 발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발족된 붓다회 포럼은 불교신행공동체 BTN붓다회의 산하조직으로 대표는 붓다회 자문위원장 종상 스님이 맡았다. 앞으로 붓다회 포럼은 각계 리더들과 불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야단법석을 연2회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책가방 선물에 천진불 웃음꽃 '활짝'

(재)아름다운동행, 예비초등학생 1600명 책가방 지원

불교계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가정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하며 활기 넘치는 학교생활을 응원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설정)은 2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책가방 전달식을 열고, 총 1619명의 예비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했다. 특히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는 1억 원의 기금을 기탁하며 더 많은 아이들이 책가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달식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설정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인드라망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셨다. 결국 나와 무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며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든 환경에 처했더라도 밝게 자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량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돕는 이들의 희생 · 봉사정신은 복과 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행사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치하했다.



설정 스님이 아이에게 가방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아름다운동행과 4년째 책가방 보내기를 함께 하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좋은 선물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자라서 국가를 빛내는 동량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1619개의 책가방은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전달된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의 선재의 선물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2009년 시작됐다. 2011년까지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 영양제 등 지원하다가 2012년부터 책가방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KB국민카드가 매년 1억 원을 후원하며 책가방은 500개에서 1600개까지 확대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온천 힐링사찰 나가노 금강사 참배 안내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백제성왕이 보내준 아미타삼존불로 인하여 사찰과 도시가 생긴 나가노 유명산 금강사 주지 법현스님 진산식과 부처님오신날 욕불식 그리고 합동천도재에 참석하고 39암자로 이루어진 천년고찰 선광사 참배와 나고야성, 마쯔모토성, 와사비농장을 관람하실 스님, 불자님을 모십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 금강사 주지 법현스님 진산식 / 부처님오신날 봉축욕불법회 / 조상님 합동천도재 / 성지순례와 관광

기간 2018년 4월 7일 ~ 10일 (3박 4일)
장소 나고야성, 나가노 금강사, 선광사, 모토성, 와사비농장
문의 늘 행복한동행 · 대평여행사
02)733-4333 010-6242-0620
열린선원 02)386-4755